

기아 전용전기차 '더 뉴 EV6' 시승기

# 더 빠르게 더 멀리... 'EV6' 더 완벽하게 진화하다

###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배터리 성능·편의사양 등 강화 충전거리 475km→494km...코너링 빠른 주행에도 차체 흔들림 없어

지난 10일 기아차가 EV6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더 뉴 EV6'를 만날 수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아닌 해치백과 왜건에 경계로 보이는 디자인으로, 승용차보다도 날렵한 이미지를 가졌다. 바로 앞에서 보니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강하고 준수한 말을 보는 듯했다.

'EV6'는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모델로, 기아가 선보인 준중형 EV3, 대형 EV9 등 라인업 중 크기는 중형이지만 사실상 만능 격인 차량이다. 지난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생산됐기 때문이다. 3년 간 글로벌 누적 판매량 21만대로, 기아의 전용전기차 성공 가능성을 연 차량이다.

'더 뉴 EV6'는 EV6의 상품성을 개선(페이스리프트)한 모델로 이날 기자는 가장 고급 모델인 '롱 레인지 GT-라인'을 직접 운전할 수 있었다. GT-라인 기본형 출고가는 6315만원(세제혜택 및 보조금 혜택 적용 전)으로, 시승 차량에는 4WD A/T, 스웨이드 컬렉션, 빌트인캠 2, 와이드 선루프, 스마트키넥트, 메디리안 사운드, 20인치 휠, 요트 매트 블루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 옵션을 모두 포함하면 7015만원이다.

이날 시승 코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발해 화순 도곡면 일대까지 가는 편도 23km 거리였다. 시승 코스 3분의 2 이상이 도심 주행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급하게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강력한 전기모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뉴 EV6'의 전기모터는 최대출력 239kW, 마력으로 환산하면 325에 달하는 강한 힘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차선 변경 시 가볍게 '푹'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순간 가속을 통해 앞으로 치고 나갔다. 도심을 벗어나 시외로 접어들자 강한 힘을 더 느낄 수



'더 뉴 EV6' 내장 디자인.

있었다. 한산한 도로에 접어들어 가속을 시작하자 고개가 젓힐 정도로 강한 힘을 뽐내며 지면을 박차고 나갔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 한 느낌을 줬다. 제원상 제로백(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기된 5.2초가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코너링에서도 빠른 속도에도 차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차체가 인상적이었다.

반환점에 도착해 확인해본 연료량은 87%. 출발 전 확인했던 배터리 용량이 92%였으니, 5%로 23km를 온 셈이다. 연비는 5.0km/kWh를 나타내고 있었다. 새로워진 EV6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4세대 배터리가 적용됐다. 전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6.6kWh 늘어난 84kWh로, 롱레인지 2WD 모델(19인치) 기준 최대 항속거리가 475km에서 494km로 늘었다. 배터리가 커졌지만 전 모델과 동일하게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차량에 내려 외관 디자인을 더욱 자세히 살펴봤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차량 색상이었다.



기아차는 지난 6월 상품성을 강화한 '더 뉴 EV6'를 출시했다. 새로워진 EV6는 배터리 용량을 늘려 최대 항속거리가 475km에서 494km로 늘었고 더욱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지난 10일 기아차가 진행한 시승행사에 사용된 '더 뉴 EV6' 차량. (기아차 제공)

옵션 사양으로 30만을 추가해야만 적용되는 '요트 매트 블루'는 매끈한 느낌의 푸른색 계열 무광 도색으로, 강한 힘을 가진 '더 뉴 EV6' GT 라인에 적합한 느낌을 줬다.

전면부는 기아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헤드라이트에 적용되면서 안전한 직삼각형 모양이었던 전 모델과 대비해 미래지향적이면서 더 강한 인상을 보여줬다. 또 주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보닛 위 굽은 두 개의 선을 더욱 과감하게 디자인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다.

측면부와 후면부도 날개 형상의 범퍼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다.

시승 차량의 경우 휠에 옵션이 적용돼 20인치 휠이 장착됐는데,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연비를 위해

휠 포크 사이 공간을 줄이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넓은 부분을 줄이면서 개방감을 줬다.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GT-라인 차량인 만큼 답답한 느낌을 없애고 시각적인 면에서 스포티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실내도 만족스러웠다. 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시승차량에 적용된 45만원짜리 스웨이드 컬렉션은 비싸지 않은 금액에도 수준급 스웨이드가 적용돼 마치 고급차량에 탄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2열 공간도 넓었는데, 웬만한 중형 SUV보다 넓은 느낌이 들었다. 제원을 살펴봐도 EV6의 휠베이스는 2900mm, 소렌토(2815mm) 보다도 길어,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보유한 첨단 기능이 모두 적용된 '더 뉴 EV6'가 전작에 비해 빌트인캠2와 디지털 센터 미러(DCM)에서 더 향상된 기능을 장착했다. 빌트인캠 2는 기존 빌트인캠1과 달리 실내 음성 녹음 기능이 추가됐고, 영상 화질도 개선됐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DCM(룸미러)의 경우 가운데 레버를 통해, 실제 거울 화면과 후면 카메라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불편함이 컸다.

더 뉴 EV6 판매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프 5260만원 ▲에어 5530만원 ▲어스 5935만원 ▲GT-라인 599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독일 본사 탐방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15일 '제17기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수료 대학 학생 11명과 독일 본사 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아카데미는 전국 11개 대학의 자동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자동차 산업 인재로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탐방은 아카데미의 커리큘럼 중 마지막 과정으로, 사회공헌위원회는 각기 수월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기술과 생산 공정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독일 진빌핑겐에 위치한 '팩토리 56(Factory 56)'을 방문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미래형 생산 시설과 최신 디지털 공정을 둘러봤다. 또 '클래식 센터'를 찾아 장인정신 기반의 자동차 보존 및 복원 과정을 체험하고,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을 방문해 기술력을 경험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모바일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한 이후 총 1319명의 참여 학생 중 162명의 우수 학생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 본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 후 딜러사 취업도 연계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제네시스 '마그마' 영국 자동차축제서 성능 첫 공개

### 굿우드서 'GV60 콘셉트' 데뷔 고성능 차량 개발 방향성도 공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영국 최대 자동차 페스티벌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굿우드)에서 고성능 영역으로의 확장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 서식스주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브랜드의 고성능 라인 '마그마' 모델들의 성능을 처음으로 시연했다. 제네시스는 GV60 마그마 콘셉트,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GV80 쿠페 콘셉트, G70 트랙 택시 노르드슬레이퍼 등 4개 차량이 이 코스를 완주했다.

이중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의 주행 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네시스는 굿우드에서 마그마로 요약되는 고성능 차량 개발의 방향성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공개하며 고성능 영역으로의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제네시스가 공개한 마그마의 3대 속성은 ▲충분한 파워와 정교한 차량 역학 제어로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감각 ▲높고 낮은 차체로 역동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 ▲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인터페이스와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 경험 등이다.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에 전시된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콘셉트'. <현대차 제공>

이에 따라 마그마 차량은 가속과 코너링 등 운전자가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사시 등 일부 기능을 마그마 특화 사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마그마 차량은 고성능에 최적화된 외장 디자인과 공격 향상을 위한 바디 파츠, 고성능 전용으로 튜닝이된 CMF(컬러·소재·마감)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마그마 전용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바탕으로 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마그마 전용 사운드, 내장재, 주행 모드 등이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GV60 마그마를 내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본격 양산하고, 향후 유행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안전·고급 사양·디자인 다 챙겼다"...기아 '더 2025 셀토스'

### 1.6 가솔린 2000만원대 판매

기아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연식 변경 모델 'The 2025 셀토스' (사진)를 출시했다.

기아는 15일 "2025년형 셀토스를 이날 출시하고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The 2025 셀토스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열 열선 시트 ▲실내 소파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편의·안전사양을 강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한 게 특징이다.

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했다.

또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고객 선택 사항을 넓혔는데,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 그라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추가했다.

The 2025 셀토스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246만원 ▲프레스티지 2562만원 ▲시그니처 2750만원 ▲그라비티 2790만원이



며, 2.0 가솔린 모델은 ▲트렌디 2147만원 ▲프레스티지 2463만원 ▲시그니처 2651만원 ▲그라비티 2691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5 셀토스는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만 추가할 수 있었던 고급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하고 내장 디자인 컬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셀토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알핀 클래스' 공식 타이어 선정

### '엑스타 V730' 독점 공급

금호타이어는 15일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알핀 클래스'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르노의 고성능차 대회인 '알핀 클래스'의 공식 타이어로 선정되면서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핀 클래스는 국내 최초의 알핀 원메이크 레이스로 르노 고성능차 '알핀 A110S' 모델이 참가한다. A110S는 후륜 구동 스포츠카로 최고출력 300마력과 최대 토크 340Nm을 자랑하며, 제로백은 4.2초다.

알핀 클래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금호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ECSTA) V730'를 장착한다. 금호타이어는 올 시즌 알핀 클래스 대회용 타이어를 전량 공급한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금호타이어가 알핀 원메이크 레이스의 공식 타이어 업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알핀 A110S'.

<금호타이어 제공>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최초로 개최되는 알핀 클래스의 성공과 국내 모터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